

## 성공 광주체전, 이렇게 준비하자

### 1 문화도시 이미지 전국에 심자



제88회 광주 전국체전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이번 체전을 문화예술과 민주·인권·평화가 한데 어울리는 '한민족 축전'으로 승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문화수도로서의 품격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첨단산업도시로의 도약을 꾀하기 위해서다. '성공 광주체전'을 위한 과제를 10차례에 나눠 실는다.

###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행사·세련된 시민의식

## “역시 문화수도” 갈채를

“전국체전은 광주가 문화수도를 선언한 이후에 처음 갖는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참가자들에게 광주만의 문화·예술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오는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 동안, 광주에서 열린 제88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김윤아(여·26)씨 등 '빛고을공공문화예술사업단' 단원들은 요즘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이들 20여명은 월드컵 경기장 벽화 그리기·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예술벤치 설치 등을 준비하느라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지경이다. 16개 시·도와 해외에서 참가하게 될 3만여명의 선수·임원 등이 “역시 광주다”라고 끔찍하게 하자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전국체전을 50일 앞두고, 광주가 바빠졌다. 체전을 전후해 집중 개최할 '디자인비엔날레', '광주국제공연예술제', '일방울 국악제' 등 문화예술행사, 선수단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릴 문화체험마당, 광주만의 매력을 선보일 개·폐회식 등 대형 문화예술 이벤트가 시내 곳곳에서 준비되고 있다.

142만 광주시민의 10%에 해당하는 14만 자원봉사자 등을 중심으로 '질서·청결·친절' 등 3대 시민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14년 만에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성공을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거리에는 불법 광고물이 넘쳐나고, 난폭운전·불법주차·무단횡단·거친 말투 등 '문화도시답지 못한' 행태가 여전하다. 여기에다 광주가 그동안 보여줬던 '강성 이미지'까지 겹친다면, 광주의 진정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불쾌감만 안겨줄 수 있다.

때문에 시민 모두가 '정의롭고', '깨끗하고', '정 많은' 세련된 매너로, 문화도시의 시민다운 품격을 은연 중에 보여주는 것으로 승부하자는 말이 나온다.

나무석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체전을 문화수도로 가는 새 길을 뚫는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시민 모두가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빛고을공공문화예술사업단' 단원들이 주말인 18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작업실에서 월드컵 경기장 등 전국체전 경기장 주변에 설치할 '예술 벤치'의 디자인을 기다리고 있다. /위지량기자 jrwi@

## 문화전당, 주차장 전략 안된다

### 600대 설계땀 대혼잡...제한구역 조려 필요 건축전문가·시민환경단체, 광주시에 촉구

시민공원과 친환경설계가 특징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600대 주차 규모로 추진중인 전당 내부주차장으로 인해 자칫 '대규모 주차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지역 시민·환경단체와 광주전 남행복발전소, 동구 비대위, 건축전문가 등은 문화전당 내부 주차장 면적이 당초 설계(100대)와 달리 5배 가깝게 594대로 늘어나면서 전당의

공원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문광부와 광주시는 내부 주차장 확대가 주차장법에 따라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주차장 조례를 개정, 문화전당 주변을 주차제한구역으로 설정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재 문광부는 문화전당 안에 주차면적 594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한편, 전당 외곽 2~3곳에 1천여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축전문가와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내부 주차장의 면적을 최소화하고 외곽주차장 규모를 1천500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도심상권 활성화 ▲시민공원 기능 극대화 ▲전당 주변 교통난 해소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문화전당 설계 당선작도 '전당 내 주차는 필수차량만을 위한 100대 규모로 하고, 인근에 외곽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국제 공모 설계지침에 따라 내부 주차장을 100대 규모로 제시했다.  
내부 주차장 면적이 600대로 변경된 것은 주차장법에 의한 최소 면적

규정과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기획예산처가 내부 주차장을 100대에서 600대로 늘리고 외곽주차장 계획을 철회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후 문광부는 외곽주차장 철회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내부 주차장을 600대 규모로 유지하되, 외곽주차장을 1천대 규모로 확보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광주시와 문광부도 주차 제한 구역 설정을 통한 내부 주차장 축소 방안을 검토했으나 자칫 외곽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차장 없는 문화전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 소재 때문에 조려 개정에 소극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희종기자 chae@

## 한나라 대선후보 오늘 확정

### 오후 4시30분 발표...경선 막판까지 과열·혼탁

#### 투표율 70.8%

한나라당의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투표가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광주·전남 27개를 포함 전국 248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관련기사 3면>  
투표 종료 뒤 투표함은 밀봉돼 16개 시·도 선관위를 거쳐 전당대회가 열리는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으로

옮겨졌다. 개표는 20일 낮 12시30분부터 시작돼 오후 4시30분경 최종 당선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8시 현재 전체 선거인단 18만5천80명 중 13만 1천84명이 투표에 참여, 최종 투표율이 70.8%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90.2%의 투표율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광주는 46.0%로 최저를 기록했다. 전남은

61.0%로 집계됐다.  
'빅'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측은 서로 승리를 자신하고 있고, 최대 변수로 꼽혀온 투표율도 예상을 웃도는 70%를 넘어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번 경선은 ▲대의원(20%) ▲당원(30%) ▲국민참여선거인단(30%)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18만5

천80명의 직접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20%)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 5천56명, 전남 7천784명 등 1만2천840명이 선거인단에 참여했다.  
여론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R&R), 동서리서치, 중앙리서치 등 3개 기관이 19일 오후 1시부터 8시 사이에 2천명씩, 총 6천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경선투표가 진행된 부산과 대구, 인천,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기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막판까지 과열·혼탁양상을 보였다.  
이번 경선 투표는 두 후보간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근소한 차이로 승자가 갈릴 경우 둘 중 누가 이기더라도 패자의 '깨끗한' 승복을 받아내기 힘들 것으로 보여 상당한 경선 후유증이 예상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정상회담 10월2~4일로 연기

### 北, 수해 이유 요청 따라

북한이 수해복구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연기하자고 요청해 음에 따라 남북한은 오는 28~30일로 예정됐던 제2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오는 10월 2~4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했다. <관련기사 5면>  
북측은 지난 18일 김만복 국정원장 앞으로 전문문을 보내 최근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수해로 인한 복구가 시급한 점을 고려해 8월 말로 합의한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10월초로 연기하되, 구체적인 방문날짜는 남측

이 편리한 대로 정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남측은 이날 오후 2시 긴급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북측의 제안을 수용하고, 2차 남북정상회담을 10월2~4일로 조정해 개최하자고 북측에 통보했으며, 북측은 이를 수용한다고 전해왔다.  
남북정상회담이 10월 초로 연기됨에 따라 당초 9월말 또는 10월초를 목표로 추진해왔던 위싱턴 한미 정상회담도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연남수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2만 4천 9백 9십 9평 규모로  
제비 '소비가가 높은 좋은 날'을 소개합니다.



###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북쪽이었고,  
머리 아플 때는 두툼약이었고 해결제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사랑으로 낮게 하는 엄마의 손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깃든 약손처럼,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 캡슐

- 비타민 A, C, E의 보급
-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필수 영양제
- 노년기, 노년기
- 눈의 건조감과 관해, 이명증
- 갱년기 부부들 동반 의한 예외적인 (기타, 주근깨와 눈화, 안염증)을 예방할 수 있다
- 말초혈행장애 및 경년기 시 다른 증상의 완화 (이명, 목감, 수족냉증, 손목관절염 등)
- 아연의 보급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에이스  
www.kyucifarm.co.kr

고객센터 080-022-2200